

3주차

종교적 반역자들

한 승 훈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술사들의 반란

- 국가의 술관들
- 민간의 술사들
- 변란 집단의 술사들

02. 신승과 요승

- 예언서의 전달자
- 저항하는 승려들
- 승병들에 대한 두려움

03. 이단적 선비들

- 유생들의 술수
- 천주교와 예언
- 몰락한 양반과 세상의 구원

04. 무당들의 묵시종말론

- 신들과 메시아
- 무당들의 종교집단
- 묵시종말적 세계관

3차시

이단적 선비들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시대 유생들의 술수 실천에 대해 알아본다.
- 초기 천주교와 술수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 19세기의 선비의식이 정치적 저항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학습내용

- 유생들의 술수
- 천주교와 예언
- 몰락한 양반과 세상의 구원

유생들의 술수

반란을 일으키는 양반들

성리학 대 민중사상?

주술을 배우는 선비들

주비朱槩 (1643~1697)

- 함경도 출신 선비
- 주역학의 전문가로 《주역연의》 집필

주비朱槩 (1643~1697)

- 민간 전승에서는 비범한 술사로 기억
- 저주에 대한 대항주술
- 변란 사건 연루되어 사망

유배객들

- 역모사건 연루로 유배된 인물들
- 저항세력화
- 이단적 지식 추구

천주교와 예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성품이 바르고 뜻이 옳으며
세심함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선학(仙學)으로 장생(長生)할 뜻이 있었는데,
‘천지개벽(天地改闢)’의 설을 잘못 믿고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바뀔 때면 신선도 소멸되는 걸 피할 수 없다.

결국 장생하는 길이 못 되니 배울 것이 못 된다.”

마침내 성교(聖敎)를 듣고는 독실하게 믿고 힘써 행했습니다.

《황사영 백서》

강이천 사건 (1797)

- 천주교 관련 정보를 해도진인설 예언에 결합
- 천주교를 왕조 멸망에 대한 예언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 이해

몰락한 양반과 세상의 구원

유생들의 변란 참여 명분

- 정치 진출 욕구와 좌절
- 선왕의 복수
- 북벌을 위한 체제 전복

선비 개념의 확장

- 19세기 이후 신분제도 동요
- 세습적 양반에 대한 불만
- 학식과 명망으로 선비를 자처하는 사람들

19세기의 저항적 선비 정신

- 제세(濟世) : 세상의 구원
- 강개(慷慨) : 현실의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
- 출생 신분에게 관계 없는 사(士)로서의 자의식

주성칠(朱成七=이필제)은 강개(慷慨)하는 이야기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으니
시대에 대한 걱정이 작지 않다.
만약 영걸(英傑)이 있다면
민생을 건져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晉州罪人等鞫案》

“사람은 천지의 본마음을 받아 태어난다.
위로는 신령한 성(性)이 있고,
성에는 오류가 갖추어져 있다.”

《晉州罪人等鞫案》

정리

- 정치적으로 좌절한 유생들의 변란 참여
- 유학적 지식 외의 도참, 술수들에 관심
- 유교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담은 명분 제시

다음 차시에서는

- 무당들의 변란 참여에 대하여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정다영

교안
이유정

영상
김록현